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실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다. 청구인은 20○○.○○.○○.경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경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 청구인에게 위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인천택시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돌아오는 길을 헤맬 때가 많다.

나. 인천에서 서울 손님을 태우고 서울까지 운행한 후 콜을 받아 인천 손님을 태우고 합법적으로 운행한 것이다.

다. 5분 안에 회차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 인천에서 서울 ○○구 인근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분간 ○○.○km 이동, 택시요금 ○○,○○○원)한 이후 바로 귀로하지 않고 ○○구에서 ○○를 거쳐 ○○○○○역 근처까지 ○○분간 ○○km를 빈차로 운행하였다. 이후 ○○역 인근에서 인천으로 오는 승객을 태우고 ○○까지 운행(○○분간, ○○.○km 이동, 택시요금 ○○,○○○원)한 것이다. 이는 타 사업구역에 손님을 내려준 후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온 것도 아닐뿐더러 귀로하는 운행 경로상의 손님을 태우고 돌아온 일시적인 영업은 더더욱 아니다.

나.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에서 영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를 인천 택시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 단,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서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적법한 영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청구인의 영업행태는 위 예외규정을 벗어난 행태로서 본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실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인천 〇〇구에서 승객을 태운 후 같은 날 〇〇:〇〇경 〇〇구에서 하차하였고(〇〇분간 〇〇.〇〇km 이동, 택시요금 〇〇,〇〇〇원), 같은 날 〇〇:〇〇경부터 〇〇:〇〇경까지 귀로 방향의 반대 방향인 〇〇를 거쳐 〇〇〇〇〇역 근처까지 약 〇〇분간 〇〇km를 공차로 운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날 〇〇:〇〇경 〇〇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후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인천 〇〇에서 하차하였다(〇〇분간, 〇〇.〇〇km 이동, 택시요금 〇〇,〇〇〇원).

다. 인천시 △△△△과는 20〇〇. 〇〇. 〇〇.경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한 교통불편신고를 접수 받았고,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경 청구인에게 과징금 〇〇〇,〇〇〇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서**

인천에서 서울 손님을 모시고 서울에 내려주고 인천으로 와야 하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타도 영업을 하려고 일부러 〇〇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타도 영업이란 걸 몰랐습니다. 요즘 돈벌이도 안 좋고 힘이 듭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계기로 서로의 영업 구역 방식을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조합에 전화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그러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〇〇. 〇〇. 〇〇.경 교통불편신고 의견진술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〇〇. 〇〇. 〇〇.경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〇〇〇,〇〇

〇원을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〇〇〇,〇〇〇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위 감경된 과징금 〇〇〇,〇〇〇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 업무범위 및 면허·허가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 제1항 또는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별표 5]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일반택시는 40만 원의 과징금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 단

1)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억제하고 해당 사업구역 내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간주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 운송을 허용하는 구역제를 시행하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경우 운행을 마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통상적인 운행경로에 따라 바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와야 하지 해당 사업구역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을 찾기 위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당연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서울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헤맨 것이고, 서울에서 콜을 받아 인천 손님을 태우고 합법적으로 인천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위 관계 법령 등에 의할 때 단순히 귀로하는 운행경로 상의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사업구역 안으로 돌아오던 중 사업구역 밖의 승객으로부터 호출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차량 운행정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 ○○. ○○:○○경 인천 ○○구에서 승객을 태운 후 같은 날 ○○:○○경 서울 ○○구에서 하차하였고(○○분간 ○○.○○km 이동, 택시요금 ○○,○○○원), 이후 즉시 동일 노선으로 귀로하여야 하나, 같은 날 ○○:○○경부터 ○○:○○경까지 귀로 방향의 반대 방향인 ○○를 거쳐 ○○○○○역 근처까지 약 ○○분간 ○○km를 공차로 운행하였고, 같은 날 ○○:○○경 ○○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후 20○○. ○○. ○○. ○○:○○경 인천 ○○에서 하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분간, ○○.○km 이동, 택시요금 ○○,○○○원).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귀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약 ○○분간 ○○km를 이동한 행위를 길을 헤맨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고 20○○. ○○. ○○.자로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은 귀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길을 헤맸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서울에서 콜을 받아 귀로 방향의 반대 방향인 ○○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행위를 ‘돌아오는 도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당초 운행노선을 우회하여 ○○를 거쳐 ○○○○○역까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귀로하는 도로를 벗어나 우회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및 과징금 액수에 관한 [별표 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의 과징금은 1차 4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6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〇〇〇,〇〇〇원이지만 최대치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〇〇〇,〇〇〇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